

“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



복지 데스크

‘전력사용량·전화통화 빅데이터’ 활용 1인가구 안부살핀다

한전·광주 광산구·SK텔레콤·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사회안전망 서비스 제공 사업 협력... 11월부터 1년간 시범

전력사용량과 스마트폰 통화 빅데이터를 활용해 1인가구의 안부를 살피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한국전력은 광주 광산구, SK텔레

콤,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과 ‘빅데이터 기반 사회안전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협력 MOU’를 체결하고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실증사

업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는 1인가구의 전력사용량과 스마트폰 통화, 위치 데이터를 활용해, 재택(在宅)·부재시 분석된 전력사용량 패턴을 기반으로 비정상상태를 감지해 행정복지센터 담당공무원에게 위급상황 알람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협약에 따라 한전과 SK텔레콤은 전력사용량, 스마트폰 통화 및 위치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의 비정상상태

분석모델을 개발하고,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은 실증사업 운영을 위한 공공기관용 클라우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광산구는 서비스 참여를 희망한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실증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오는 11월부터 1년간 서비스를 이용해 1인가구의 안부를 살피는 등 시범적으로 실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상규 한전 디지털변환처장은

“전력과 통신, 인터넷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 간 데이터 협력을 통해 지자체에 새로운 공공서비스 모델을 제공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전은 자체 보유 데이터를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임행택 기자



전남대병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0건

전남대학교병원의 2018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4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보면 전국 대학병원 중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법정 기준을 충족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대 치과병원이 0.37%로 가장 높았고, 강원대병원이 0.29%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전남대병원의 경우 경북대 병원과 함께 우선 구매액이 0원으로 단 한 건의 우선구매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대병원의 지난해 총 구매액은 3209억6674만8630원이었다.
여 의원은 “대학병원들은 모두 2019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금액을 법정 기준인 총 구매 계획 금액의 1%로 맞춰 보건복지부에 보고했다”며 “하지만 2018년 구매실적을 볼 때 이런 계획이 제대로 지켜질 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가출 지적장애인 사기 범행에 이용한 2명 징역

법원 “죄질 좋지 않다”
가출한 지적장애인을 신고하지 않고 데리고 있으면서 범행에 이용한 2명이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상재 판사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과 40시간의 준법윤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B씨(21)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쯤 지적장애 2급인 C씨를 유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5일 동안 데리고 있던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지난해 2월 충북에 있는 집에서 가출해 아버지로부터 경찰에 실종신고가 됐다.
당시 이들은 대출을 바라는 C씨에게 “대출이 되지 않으니 콩팥을 팔아서 600만원을 벌게 해주겠다”며 특정 장소로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들은 C씨가 귀가하거나 가족과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광주의 한 모텔에 투숙 시킨 뒤 가짜 돈을 전당포에 진품으로 속여 맡기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가출한 지적장애인을 신고하지 않고 데리고 있으면서 사기범행에 이용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더욱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선거인 대상 ‘장애인선거연수’ 실시

광주 북구선거관리위, 장애선거인 30여 명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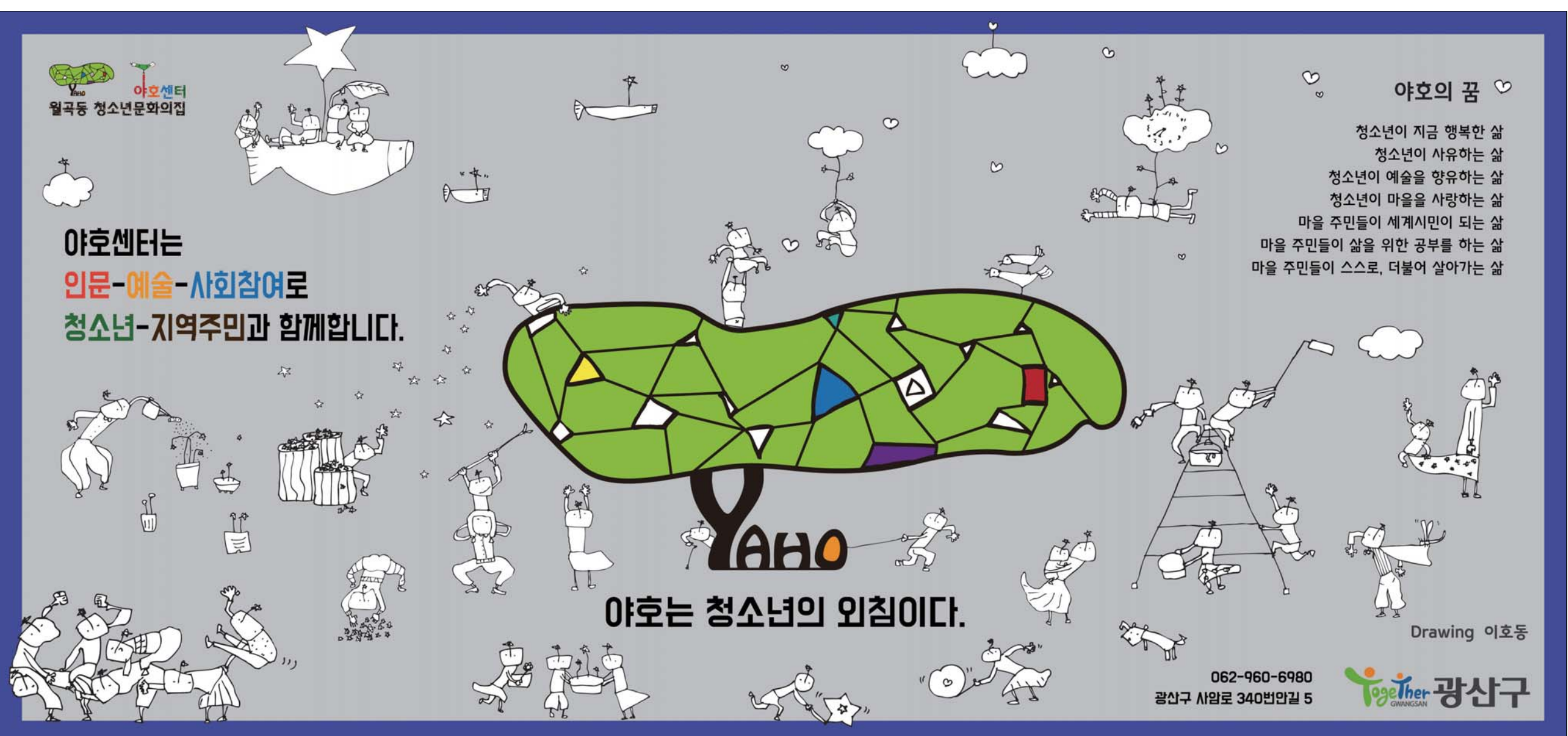
광주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 2시간 동안 북구건국동 소재 발달장애 거주시설인 ‘가교 행복빌라’를 방문하여 상시 거주하는 발달장애선거인 30여 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선거연수’를 실시하였다.
강의와 투표체험학습을 통하여 투표참여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공

직선거에서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실시한 장애인선거연수는 선거관리위원회 소개, 투표참여의

중요성과 장애선거인의 투표방법 안내,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 제한 사항 등 강의에 이어 투표용지발급기를 이용한 사전투표체험순으로 실시하였다.

서선옥 기자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